

핵심교양 수강신청에 관한 온라인 설문조사



학년 제한에 대한 불만 많아

핵심교양은 학부생이 졸업을 위해 반드시 수강해야 하는 교과목이다. 핵심교양 수강신청과 관련하여 학생들은 어떤 문제점을 느끼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보았다.

① 수강신청 시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허용)



많은 학생들이 '학년별 수강신청 제한' 을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핵심교양의 경우 특별히 지난 2005학년도부터 1학년을 우선으로 수강신청을 받고 있다. 따라서 2학년 이상의 학부생들은 핵심교양 교과목 중 자신이 원하는 강의를 수강하기 어렵다. 최민정(경영대 04학번)씨는 "핵심교양 교과목 가운데 흥미로운 강의가 많기 때문에, 졸업규정과 무관하게 핵심교양 수강신청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하며 강의제한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 밖에도 학생들은 '강의 정보의 부족' 과 '전반적으로 적은 강의 수' 를 문제점으로 보고 있다. '특정 분과의 강의 수 부족' 을 선택한 사람들은 주관식 문항에서 자신이 부족하다 생각했던 분과를 각각 적었는데, 여기서는 4개 영역이 골고루 언급되었다. 이는 핵심교양 교과목 수가 전반적으로 늘어나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선후배 및 동기의 조언이 수강신청에 결정적 영향 미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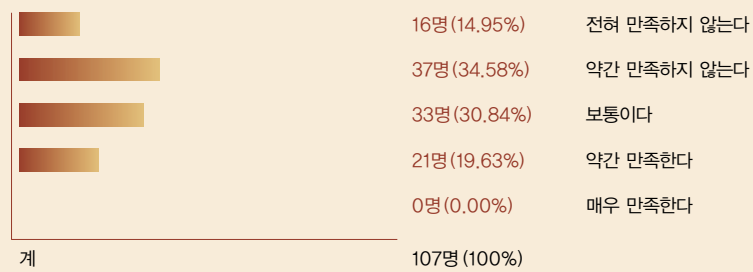
② 강의정보는 주로 어디에서 얻으십니까? (복수응답 허용)



기초교육원에서는 학생들의 폭넓은 교양교육을 위해 2002학년도부터 핵심교양 교과목을 운영해 왔다. 핵심교양은 문학과 예술, 역사와 철학, 사회와 이념, 자연의 이해, 4개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부생들은 졸업 전까지 4개영역 중 3개영역에 걸쳐 3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열린지성>에서는 서울대 정보화 포털 홈페이지와 기초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핵심교양 교과목의 수강신청 제도 및 수강정보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설문기간은 10월 12일부터 11월 3일까지였으며, 예상보다 적은 총 107명의 학생이 설문조사에 응했습니다. 표본 수가 적어 전체 재학생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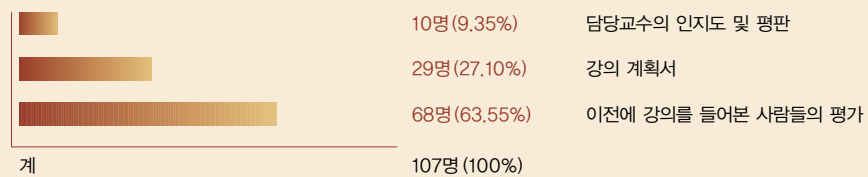
③ 강의정보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강의계획서'를 통해 강의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46.99%). 수업을 들어본 선후배·동기의 조언을 참고하거나 SNULife 강의정보 게시판 같은 학내 매체를 이용해 정보를 얻는다고 대답한 학생의 비율은 각 31.33%와 20.48%로 나타났다. 이 외에 담당교수님의 저서를 통해 또는 청강을 통해 강의 정보를 얻는다는 대답도 상당수 나왔다.

강의정보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 묻는 질문에서는 '약간 만족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34.58%로 제일 많았으며, '보통이다', '약간 만족한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는 대답도 골고루 나타났다. 반면 '매우 만족한다'는 대답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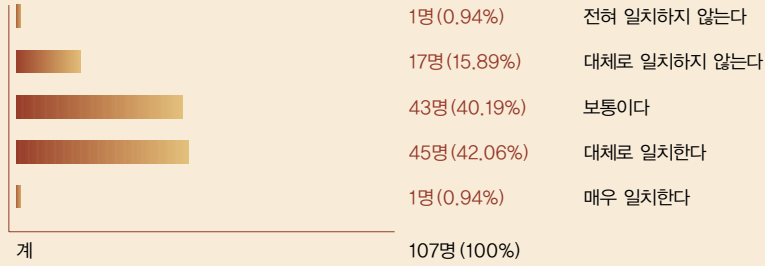
④ 강의를 선택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강의 정보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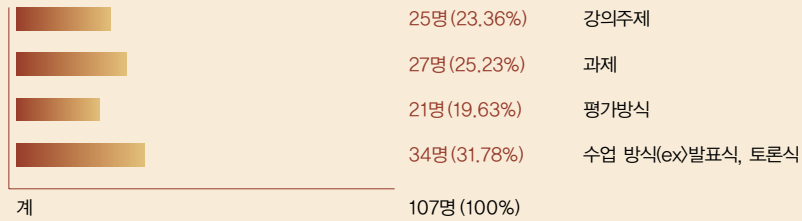
실제 강의를 선택할 때에는 학생들이 선후배 및 동기의 조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3.55%). 강의계획서를 가장 중요하게 본다고 대답한 학생도 있었으나(27.10%), 그 수는 선후배 및 동기의 조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학생들의 수보다 현격히 적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강의계획서를 통해 관심 가는 강의들을 고르고, 그 후 수업을 들은 선후배 및 동기의 조언을 통해 수강신청 할 강의를 확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담당 교수의 인지도 및 평판'을 중요하게 보는 학생의 비율은 9.3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실제 수업은 강의계획서와 대체로 일치

⑤ 대체적으로 강의계획서와 실제 강의는 얼마나 일치 하는가?



⑥ 강의계획서와 다르게 강의를 진행될 때 주로 어느 부분이 달라지는가?



많은 학생들은 실제 수업이 대체로 강의계획서대로 진행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2.06%). 전혀 혹은 대체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학생도 상당수 있었다. 반면 실제 수업과 강의 계획서가 매우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학생 수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강의계획서와 달라지는 부분은 주로 수업 방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방식, 과제, 수업 주제가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학생 수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향후 핵심교양 개선 방향

기타 건의사항으로 ‘핵심교양과 일반교양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다. 핵심교양을 좀 더 특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과 ‘핵심교양 교과목들을 각각 문과반과 이과반으로 나누어 따로 수강 신청을 받았으면 좋겠다. 문과 수업의 경우 이과생은 문과생에 비해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는 의견도 있었다.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핵심교양을 특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강의 보충과 수강규정 조정의 필요성이 확인된다.

이와 관련하여 홍종인 기초교육원 부원장은 “꾸준히 핵심교양 교과목을 개발하여 2008년도에는 120 강좌 이상을 운영할 계획”이며 “학년제한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을 고려해 겨울 계절학기를 개설해 핵심교양 수강 기회를 늘리고 2학년 이상 학생의 수강신청 할당량을 늘리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핵심교양의 취지가 애초 인문·사회·자연을 아우르는 폭넓은 교양교육 실시에 있기 때문에, 문과반과 이과반으로 나누어 강의를 개설하기는 힘들며 현재 학년제한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글 : 황향주